

세상을 바꾸기 위한 기후행동

기후환경이야기

임낙평
광주환경운동연합
전 의장



올 여름은 유난히 무더웠다. 사람들은 만났을 때 ‘폭염에 얼마나 고생했느냐’가 인사다.

기상청 자료에 의하면 ‘8월 폭염 일수는 16.9일, 열대야 11.3일’을 기록했다. 신기록이다. 이런 자료가 아니라도 사람들은 기온의 상승, 폭염, 지구온난화의 실체를 스스로 체감한다.

지난 7월 말, 북쪽 압록강 유역 신의주 일대에 ‘기록적인 대홍수’가 발생, 수많은 사상자와 이재민,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정확한 현황은 알 수 없으나 지구온난화가 초래한 비극이다.

기상재난으로 세계가 조용한 날이 없었다. 세계 각처에서 들려오는 썩썩 40~50도를 오락가락 하는 폭염, 대홍수와 산사태, 태풍, 극심한 가뭄과 거대한 산불, 극지방 빙하의 상실 등 뉴스는 현재 인류가 직면한 기후위기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각종 재난으로 수많은 사상자와 재산피해가 갈수록 증가 추세다. 지난 2023년은 ‘인류 역사상 가장 무더운 해’였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급변이 작년의 기록을 깨고 가장 무더운 해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재난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지구기후와 생태계를 망가뜨

리는 기후위기, 지구온난화의 기세가 기양양하다. 지난 8월 중순까지 국내에서 폭염질환 발생자가 3000~4000명이었고 그 중 사망자가 21명이었다. (질병관리청 발표)

가족이나 양식장, 농작물 피해도 상당할 것이다. 얼마 전 유럽의 전문 연구기관 발표에 의하면 2023년 전 유럽에서 폭염으로 인해 5만 명이 사망했다.

지난 2003년, 유럽 전역에서 폭염으로 인해 7만 명이 사망한 적이 있었다. 지난 20년 유럽연합과 모든 국가들이 폭염경보제체 도입과 폭염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 시행해 왔다. 폭염 대응 정책이 없었다면 피해는 훨씬 더 컸을 것이다. 피해는 대개 폭염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노약자, 농민이나 노동자 등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사이 폭염은 ‘침묵의 살인자(Silent Killer)’라는 별칭을 얻었다.

살인자가 준동하고 기후위기가 기세를 떨치는 세상은 재앙이다. 이를 막아내야 한다. 범인은 온실가스. 지난 9월 7일 서울 강남 대로에서 ‘907 기후정의행진’ 행사가 있었다. 무려 2만여 명이 시민들이 움집해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며 거리를 행진했다.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기후악당(Climate Villain)’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다.

그만큼 온실가스에 관대한 후진적 기후정책을 가지고 있다. ‘2030 40% 온실가스 감축, 2050년 탄소중립’이 정부의 목표이다.

그러나 말로만 목표일뿐 내용이 텅 비

어있다. 현재의 추세로는 목표달성은 불가능하다. 목표에 도달하려는 구체적 정책이 있어야 한다. 과감하고 야심찬 감축이 필요하다. 600여 개 NGO들은 앞으로도 대중의 힘(People Power)을 통해 정부와 정치권에 정책전환을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유럽은 기후에너지 정책에서 우리보다 앞선다. 유럽연합(27개국)은 ‘2030 55% 감축, 2050 탄소중립’을 담은 ‘기후변화법’이 있고, ‘Fit For 55(55% 감축 세부정책)’을 시행 중이다. 영국 또한 ‘2035 78% 감축과 2050 탄소중립’의 가장 앞선 목표를 세우고, 시행 중이다.

미국 또한 ‘2030 50~52% 감축과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기후변화대응과 일자리 창출법이라고 함)’에 이를 반영하여 실행 중이다. 이런 확고한 목표와 정책이 있음에도 유럽의 수많은 NGO들은 더 앞선 정책의 도입을 요구하는 기후행동을 펼치고 있다. 그들은 ‘즉각 석유 가스 개발 중단’, ‘2030 석탄퇴출’, 2030년대 화석연료 추방’ 등을 요구하고 있다. 온실가스를 근본적으로 차단하자는 것이다. 인류가 지금 겪고 있는 각종 기후재난이 그들은 행동하게 한 것이다.

기후활동가 그레타 툰베리(Greta Thunberg)는 ‘기존 시스템에서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시스템 자체를 바꿔라’고 주장한 바 있다.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도 마찬가지로 의미이다. 세상을 바꾸기 위한 행동이 절실하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박수정(가운데)이 7일(현지시각)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열린 2024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여자 월드컵 조별 리그 D조 3차전 독일과 경기 전반 22분 선제 결승 골을 넣고 환호하고 있다. 한국이 1-0으로 승리해 1승1무1패(승점4)로 조 3위를 기록했다. 각 조 1·2위와 조 3위 중 상위 4개 팀이 16강에 오르면서 한국은 다른 조 팀들의 경기 결과에 따라 16강 진출 여부가 결정된다.

AP/뉴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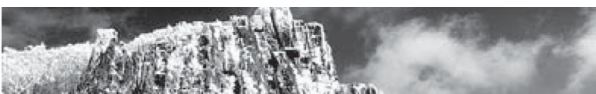
서석대

1993년 한국 프로야구판에 걸출한 신인이 등장했다. ‘바람의 아들’ 이종범이다. 1차 지명을 받아 해태 타이거즈에 입단한 이종범은 데뷔 첫 해부터 공수주에서 화려한 플레이를 펼쳐 단숨에 스타덤에 올랐다.

같은 해 한국시리즈에서 맹활약해 신인으로는 김정수 이후 두 번째로 시리즈 MVP에 올랐다. 1994년에는 타율 0.393으로 타격왕을 차지했고, 84도루로 역대 시즌 최다 기록을 세우면서 타격 5관왕으로 MVP에 선정됐다. 1997년에는 30홈런 64도루라는 역대급 기록을 남겼다.

1998~2001년 일본 주니치에 몸 담았던 이종범은 2001년 7월 KIA타이거즈로 복귀했고, 2011시즌을 끝으로 은퇴했다. ‘투수는 선동열, 타자는 이승엽, 야구는 이종범’이란 야구계 명언을 남길 정도로 이종범은 게임 체인저로서 야구 팬들의 사랑을 받았다. 이종범은 당시 팀이 지고 있더라도 타석에 들어서면 ‘해줄 것 같은 바람’을 현실로 이뤄주던 선수였다.

이종범이 그라운드를 떠난 지 10여 년이 흐른 올해 이종범을 연상케 하는 젊은 선수가 프로야구판을 들쭉이고 있다. KIA타이거즈 내야수 김도영(21)이다.



김도영 열풍

2022년 KIA타이거즈 1차 지명 받아 프로 데뷔한 김도영은 1~2년 차에는 프로 적응과 함께 부상 등에 시달리며 이렇다 할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다. 하지만 3년 차인 올시즌 그는 강한 힘과 정교한 타격, 빠른 발의 장점을 발휘하며 ‘게임 체인저’로서 활약을 펼치고 있다.

KBO 최초 월간 10홈런-10도루 클럽, 역대 첫 번째 4타석-내주럴 사이클링 히트, 최연소-최소 경기 30-30 클럽, 타이거즈 최초 30홈런-30도루-100타점-100득점 등 놀라운 기록들을 달성하며 타이거즈를 넘어 한국 야구 차세대 슈퍼스타로 주목받

으며 야구 팬들을 열광시키고 있다. KIA타이거즈는 김도영의 인기에 힘입어 지난 8월29일 SSG 랜더스와의 홈경기에서 2017년에 이어 구단 역대 두 번째로 100만 관중을 돌파했고, 지난 3일 LG트윈스와의 홈경기에선 구단 한 시즌 최다 관중 신기록을 수립했다. 지난 7일 키움 히어로즈와의 홈경기에서는 구단 한 시즌 최다 매진 기록을 경신했다.

스물 한 살의 나이에 프로야구 역사를 다시 쓰고 있는 김도영이 이제 40홈런-40도루를 달성해 지역 팬들에게 기쁨을 선사해 주길 바란다. “도영아 니따시 살아야.”

최동환 취재2부 선임부장

건설업계 부정, 일벌백계로 단죄해야

전남도 합동감사서 23건 적발

전남도가 총사업비 5억 원 이상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감사를 벌여 예산 낭비와 부실시공 등 부적정 사례 23건을 적발했다. 주거와 교통, 사주의 구간을 다루는 건설은 다른 어느 곳보다 가장 안전해야 할 분야다. 이런 곳에서 부실시공이 횡행한 것은 건설업계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권과 부패의 카르텔이 가져올 후폭풍이 두렵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 감사관실이 도 본청과 13개 시·군이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 16곳을 대상으로 현장 관리 등을 감사한 결과 23건의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 감사 결과 한 자치단체는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품질관리자의 무단이탈을 알지 못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지자체는 공사관리관이 분기별 합동점검과 기성검사에 단 한차례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한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안전시설물 설치를 소

홀히 하고 안전성을 확인하지 않고 시공을 승인해 근로자들이 위험에 노출될 우려를 초래한 곳도 있었다.

건설은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분야다. 지난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부터 지난 2022년 공사중인 건물 외벽이 무너져 내린 광주 화정동 아파트까지 건설현장에서 일어난 수많은 사고는 부실과 부패가 가져온 결과였다. 특히 화정동 아파트 붕괴는 시공 방법을 멋대로 바꾸고, 건설지침대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탓에 일어난 전형적인 인재다. 건축에 쓰인 콘크리트 강도도 기준에 미달했다.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6명이 목숨을 잃고 건물마져 해체시킨 뒤 다시 지어야 할 정도로 훼손된 치명적 이유로 안전불감증에 있다.

전남도는 사업비와 관계없이 안전과 관련된 건설현장에 대해 전수 조사를 벌여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해야 한다. 사업자간 이권을 놓고 벌이는 부패의 카르텔에 대해서도 일벌백계 해야 한다. 보강 공사 등 후속조치도 마찬가지다. 예산은 ‘핑팡’ 쓰면서 시공이 ‘부실’한 것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된다.

임대주택 내 고독사 예방책 시급하다

광주·전남 전국서 두번째 많아

광주·전남 공공임대주택 내 자살·고독사 사례가 최근 5년새 급증하고 있다. 지역사회와 단절된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과 예방대책이 절실하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춘석 의원이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주택관리공단 관리임대주택(영구·국민·공공임대) 내 사건·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7월까지 5년간 자살 229건, 고독사 176건 등 총 405건이 발생했다. 지사별로 광주·전남은 52건으로 부산·울산(74건)에 이어 전국 12개 지사 중 두 번째로 많았다.

공공 임대주택의 경우 노인 비중이 높아 고독사 발생에 취약해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2021년 영구임대주택의 입주민 중 독거세대는 9만 4810세대로 영구 임대주택 전체 입주세대에 67%를 차지한다. 이중 65세 이상 독거노인 세대는 5만 5952세대로 59%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그만큼 자살 및 고독사 위험도가 높다.

고독사 등 고위험군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 주거복지사업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한다. 지난 2023년 기준 주거관리사 1명이 관리하는 가구수는 1285.5명으로 2022년 대비 400명 가량(1689.6명) 줄었지만 여전히 1000명을 훌쩍 넘어 업무 부담이 상당하다. 사회안전망이 허술하다 보니 고독사 증가율도 가파르다.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8.8%씩 증가하는 추세다. 사망자 수도 문제지만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1인 가구 증가, 급속한 고령화, 경제 위기로 고립 가구와 고독사 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위험이 되고 있다. 현직 경찰관이 쓴 ‘고독사는 사회적 타살’이라는 책처럼 저자의 인식에 모두들 동의할 것이다. 적어도 사회적 고립은 국가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필요한 시대다. 소외되고 고립되는 이웃들이 없도록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긴밀한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인다. 고독사 위험군인 취약계층은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이다. 죽음조차 소외되는 각박한 우리 사회를 되돌아 볼 중요한 시기임이 분명해 보인다.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51	
	취재1부	(062)510-0380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취재2부	(062)510-0394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정치부	(062)510-0340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 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